

慶州崔氏 百弗庵 宗家 崇慕閣 藏書의 書誌的 分析

A Bibliographic Analysis of The Old Books in Soongmogak of Baekbulam, The Haed of Gyeongju Choi Clan

남 권 희(Kwon-Hee Nam)
최 기 척(Ki-Cheok Choi)**

〈목 차〉

- | | |
|------------------------|-------------|
| I. 緒言 | 3. 筆寫本 |
| II. 百弗庵 宗家의 歷史와 資料의 現況 | 4. 拓本 및 新式本 |
| 1. 慶州崔氏 百弗庵 宗家의 家系와 人物 | IV. 主題別 分析 |
| 2. 소장 고서의 藏書印 및 藏書記 概觀 | 1. 經部 |
| 3. 資料의 現況 | 2. 史部 |
| III. 版種別 分析 | 3. 子部 |
| 1. 木板本 | 4. 雜部 |
| 2. 木活字本 | V. 結語 |

초 록

이 연구는 경주최씨 백불암 종가의 崇慕閣에 소장된 고서 665종 1,354책의 장서 구성 현황과 장서가 지난 성격을 살펴보자 한 것이다. 숭모각에 소장된 장서는 종가에서 약 400년에 걸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으로 역사 및 서지사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상당히 많다. 시기적으로는 16세기의 간행본부터 주제별로는 문집류, 경서류, 역사서류 등 다양하며, 상태 또한 대부분 온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키워드: 百弗庵, 崔興遠, 崇慕閣, 古書, 家藏書冊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books in Soongmogak of Baekbulam head family house through the bibliographic analysis. The collection consists of 655 types and 1335 pieces of the old books held in a famous Choi family. Books that has been handed down for 400 years generations at Soongmogak are historic references. Books of Soongmogak are preserved well, and its publication date starts from 16th century to 20th century. types of books are roughly divided into Confucian classic, anthology and history book.

Keywords: Baekbulam, Choi Heungwon, Soongmogak, Old book, Soongmogak Collection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khnam-1027@hanmail.net) (제1저자)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chuki1040@nate.com)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6년 11월 18일 •최초심사: 2016년 11월 29일 •개재확정: 2016년 12월 27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3), 537-557, 2016.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09.537]

I. 緒言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 관리의 대책 마련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2004년부터 ‘개인 소장 동산문화재 조사 사업’을 통해 嶺南의 여러 종가와 서원 등에 전래된 古文獻과 목판 등의 유물 총 151,989점을 조사하였다. 지난 2014년에는 慶州崔氏 百弗庵 종가(이하 백불암 종가)의 古書 1,354책과 古文書 13,745점,¹⁾²⁾ 기타 민속자료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가 한국국학진흥원의 학술용역을 통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국학진흥원의 조사와 별개로 백불암 종가 승모각에 소장된 고서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장서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백불암 종가는 입향조 臺巖 崔東菴이 1616년 대구 옻골로 세거지를 옮기고 새로운 派를 형성하여 입향이래 400년 동안 후손들이 세거해왔다. 6세 백불암 崔興遠 代에 家勢가 가장 번성하였으며, 후손들은 가업을 이어 학문에 매진하여 종가에서는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었다. 승모각에 소장된 자료들은 종가의 역사와 함께 약 400년에 걸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으로 서지사 및 지방 문화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지금까지 백불암 종가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백불암이 실시한 夫仁洞 洞約에 관한 연구(정진영 1982)를 비롯하여, 백불암의 생애와 사상에 관한 연구(김시황 2001), 백불암이 남긴 시의 도학문학적 양상과 특성에 관한 연구(김영숙 2001), 백불암이 실시한 향약을 학문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정진영 2001), 백불암이 살던 시대 배경과 현실 대응 의식을 살펴본 연구(이재철 2001), 백불암 성리사상의 특징에 관한 연구(장윤수 2001), 부인동 및 옻골의 경영 규범에 관한 연구(최연돈 2010), 백불암 가문의 학풍에 관한 연구(장윤수 2015) 등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대체로 백불암 최홍원에 대한 연구가 선행연구의 주를 이루어 왔으나 최근에는 종가에 전래된 몇몇 고서를 대상으로 단편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를 살펴보면, 『通講錄』의 正字化와 해제를 통해 17세기 초 대구지역의 유림들이 행한 통강을 살펴본 연구(구본욱 2012)와 백불암 최홍원의 『曆中日記』에 나타난 영남선비의 일상을 살펴보고 이 책의 가치를 밝힌 연구(오용원 2015)가 있다. 그러나 종가에 전래된 승모각 장서 전체를 대상으로 그 현황 파악이나 판종별·주제별 분류 그리고 주요자료에 대한 서지적 분석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백불암 종가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집안의 가계와 인물들의 행적을 살펴본 다음, 책에 남아있는 백불암 종가와 집안 인물들의 藏書印 및 藏書記를概觀하고, 승모각 장서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승모각 장서를 版種別, 主題別로 分析을 시도하여 장서 구성의 특징과 더불어 주요자료를 살펴보았다.

1) 백불암 종가의 고서와 고문서 가운데 664점은 2003년 4월 30일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51호’로 지정되었다.
2) 고문서 13,745점은 2016년 11월 19일 현재 안동대학교 박물관에 기탁되어 있으며,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II. 百弗庵 宗家의 歷史와 資料의 現況

1. 慶州崔氏 百弗庵 宗家의 家系와 人物

경주최씨의 源은 신라초기의 蘇伐都利公으로부터 시작하였으며, 실질적 시조는 신라 말기의 학자이자 뛰어난 문장가였던 孤雲 崔致遠이다. 경주최씨는 조선시대 초기에 이르러 27개의 파로 갈리게 되는데, 백불암 종가는 옻골 臺巖公派로서 조선 초 27개 파 가운데 4대 큰 파의 하나인 匡靖公派의 支派이다. 광정공파의 상조인 匡靖公 崔單은 1388년 遼東征伐 때 李成桂의 휘하로 있으면서 위화도 회군뒤 開國功臣에 책봉된 인물이다. 그의 손자인 崔孟淵은 孟山縣監을 지냈으며 대구 도동에 정착하여 세거하였다. 이후 임진왜란 때 대구의 병기장으로서 활약한 台洞 崔誠의 차남인 臺巖 崔東菴은 1616년 세거지를 도동에서 옻골로 옮기고 새로운 派를 형성하였다.

대암 최동집의 부친 최계는 임진왜란 후 자신이 전쟁에서 세운 공로에도 불구하고 무인에 대한 차별로 크게 상심하여 가문을 문인의 가풍으로 바꿀 결심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세 아들은 모두 寒岡 鄭述의 문하에서 공부하게 되었고, 큰 아들 茶川 崔東暉은 生員, 둘째 대암 최동집과 셋째 香巖 崔東宣은 進士試에 합격하였다. 이후 대암 최동집은 대과에 급제하였지만 관직에 뽑히지 못하자 宣祖가 이를 아쉬워하여 『三綱二倫圖』 2책을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는 향촌에 머물며 영남 35門中이 결성한 同道會에 참여하였고,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研經書院을 重建하여 退溪 李滉과 한강 정구의 배향에 집중하였다. 1639년에 遺逸로 친거되어 陵參奉에 除授되었고 鳳林大君의 師傅를 지냈다. 1644년 명나라가 망하자 崇禎處士를 자처하여 팔공산 부인동에 은거하며 鄕約을 실시하였고, 聲淵書堂에서 다수의 제자를 양성하였다. 많은 저서를 남겼으나 초고를 빌려간 지인의 집에 불이 나서 소실되었고 그 후 최동집의 6세손인 백불암 최홍원이 잔편을 수습하고 窟窩 崔興壁이 수정 및 편집하여 19세기 초에 4권 2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4세 德叟 崔壽學은 1691년 武科에 급제하였으며, 殿中御史司憲府監察과 通訓大夫副護軍으로서 光陽縣監을 지냈다. 옻골과 중동, 상동을 포함한 上洞洞約을 추진하여 지역민의 교화와 구휼에 힘썼다. 생전에 맏아들 崔麟錫이 자식 없이 요절하자 대암 최동집을 不遷位로 인정받기 위해 차남 禹瑞 崔鼎錫에게 宗祀를 잊도록 하였다.

6세 백불암 최홍원과 9세 止軒 崔孝述은 입향조 대암 최동집과 더불어 백불암 종가에서 배출한 徵士이다. 먼저 백불암 최홍원은 일찍이 부친의 허락을 받아 학문에 전념하여 당대 영남을 대표하는 儒宗으로서 大山 李象靖과 더불어 退溪學派의 한 맥을 이었다. 隱逸로서 景慕宮守奉官, 章陵參奉, 童蒙敎官, 掌樂院主簿, 工曹佐郎, 世子翊衛司左翊贊, 通政大夫, 承政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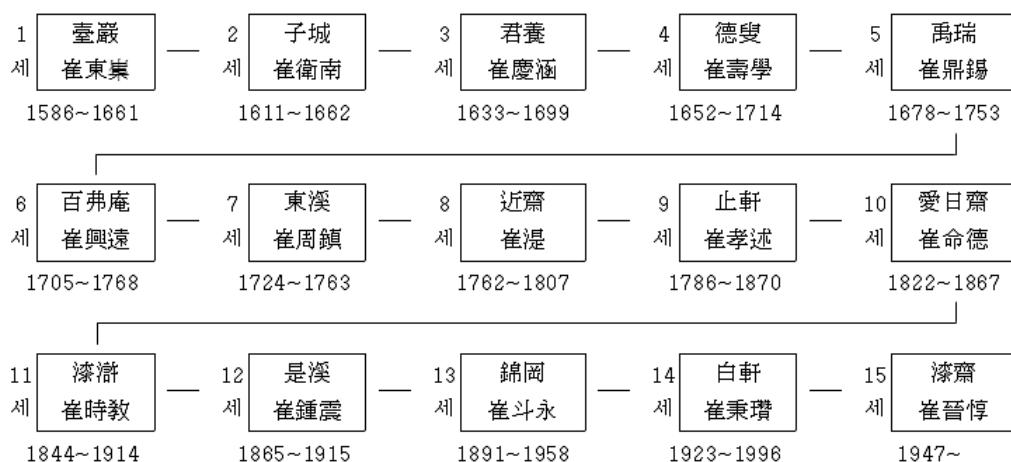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4호)

左承旨 겸 經筵參贊官으로 제수되었으나 관직에 진출하지 않았다. 문인은 123명이 있으며, 문과 9명, 무과 3명, 3명의 급제자와 42명이 문집을 남겼다. 저서로 『曆中日記』가 있으며, 증손인 지현 최효술에 의해 19세기 초 문집 7책이 목판본으로 초간 되었다. 한편 백불암 최홍원은 1752년 외외가인 磻溪 柳馨遠의 아들로부터 『磻溪隨錄』의 草稿를 입수하여 謄出한 뒤, 영조의 명을 받아 옷골 報本堂에서 제자들과 교정을 하였다. 이러한 교정본은 1770년 당시 경상도관찰사인 李灝에 의하여 監營에서 26권 13책으로 간행이 된다. 이 공로로 임금에게 四書三經諺解 한질을 하사받았다. 『반계수록』을 참고로 팔공산 부인동에 先公庫, 恤貧庫를 설치하여 백성들의 곤궁을 해결하고 講舍를 두어 풍속을 교화하였다. 정조가 이를 칭송하는 傳敘를 내렸으며 當代 首領들의 先進 視察地가 되었다.

지현 최효술은 은일로서 通政大夫敦寧府都正에 제수되었으나 관직에 나가지 않고 부인동 동약의 계승에 노력하였다. 백불암부터 家學으로 이어온 敬公부에 매진하여 敬牌를 항상 가까이 두었으며, 道東書院과 玉山書院 원장을 지내며 백불암의 뒤를 이어 학맥을 다시 일으켰다. 현재 그의 문집 15권 7책이 남아있다.

1세 대암 최동집부터 13세 錦岡 崔斗永까지 12대를 내려오면서 종손 8인과 지손 16인이 문집을 남겼다. 또한 영남유림의 각 명문가와 교류하여 혼인과 서원출입, 萬人疏 등에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백불암 최홍원과 장자인 7세 東溪 崔周鎮은 畿湖地方 南人系列의 성호 이익을 비롯한 실학자들과 교류가 활발하였다.

선비 가문으로서의 활발한 활동은 국난 시에도 이어졌다. 1907년 일본이 도입한 차관을 갚기 위해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자 11세 漆滸 崔時教는 13인의 대구대표 중 1인으로서 이 운동을 주도하였다. 12세 是溪 崔鍾震과 琴田 崔鐘應은 독립운동과 상해임시정부의 모금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금전은 훈장을 받기도 하였다. 13세 금강 최두영은 일제강점기라는 격변



<그림 1> 옷골 臺巖公派 宗家 家系圖

의 시기에서 종가의 존속과 민생의 구휼을 위해 힘썼다. 그는 주변 마을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뜻을 개발하였고, 흉년으로 기근이 심해지자 조선식산은행에서 1만5000원을 대출받아 무상으로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후 14세 白軒 崔秉贊은 문필가로 활동하여 文風을 振作시켰으며, 아울러 중단되었던 영남 35문중의 동도회 재결집에 참여하며 교류증대에 노력하였다.(김광언 2008, 227)

2. 소장 고서의 藏書印 및 藏書記 概觀

장서인과 장서기는 책의 시대 감정이나 진본 여부의 확인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장서인은 책의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 소유주의 이름을 새겨 날인한 것을 말한다. 장서인에 나타난 소유주의 정보를 통해 간행연대와 유통과정, 보관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장서기는 책의 표지나 면지, 본문 등에 소유주가 자유롭게 남긴 기록으로서 일반적으로 책의 앞표지에는 서명과 책자, 총책수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면지와 같은 백지 공간에서는 소유주의 성명이나 堂號, 所藏日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송모각 장서에 남아있는 백불암 종가 및 집안 인물의 소유를 나타내는 장서인과 장서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印記의 흔적은 있으나 훼손이나 산화 등의 이유로 판독이 불가한 경우는 판독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장서인의 경우 665종의 송모각 장서 가운데 54종의 장서에서 총 14顆가 확인되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송모각 장서에 나타난 백불암 종가 및 집안 인물들의 장서인은 모두 18세기 이후에 날인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백불암 종가의 장서인으로 [漆溪書架], [漆溪藏], [數咎堂藏]의 四角朱印 3과가 확인된다. 개인의 장서인으로는 먼저 [公普] 1과와 [公普父] 1과가 있는데, 이는 7세 동계 최주진의 장서인으로 확인되며, 송모각 장서에 날인된 장서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1세 칠호 최시교의 장서인으로 사각주인의 [慶州崔氏時教]가 확인되며, 四角墨印 [崔氏憲教] 1과, 圓形朱印 [崔東教] 1과, 사각주인 [崔鍾國藏], [崔鍾應藏], [崔鍾大信], [崔長永信] 각 1과, 원형주인 [崔[]永藏], [崔轍永印] 각 1과가 확인된다.

다음으로 665종의 송모각 장서 가운데 105종의 책에서 소장경위와 소유주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장서기가 있다. 소유주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慶州崔氏家藏’, ‘月城崔氏寶藏’, ‘溪西書室’, ‘台洞退老宅所來’, ‘漆溪都正宅寶藏勿失’, ‘密陽宅寶藏’, ‘百弗庵家藏’ 등의 종가 소유의 기록과 더불어 ‘崔鍾國藏’, ‘崔奎永藏’, ‘冊主泗水宅麒奉’ 등의 개인 소유의 기록이 확인된다.

<표 1> 百弗庵 宗家 집안 관련 藏書印

百弗庵 宗家 藏書印			
公普 崔周鎮(1724~1763)	公普父	慶州崔氏時教 崔時教(1844~1914)	
崔氏憲教 崔憲教(1861~1907)	崔東教 崔東教(1867~1931)	崔鍾國藏 崔鍾國(1884~1955)	崔鍾應信 崔鍾應(1873~1943)
崔鍾大信 崔鍾大(19~20世紀)	崔長永信 崔長永(20世紀)	崔[]永藏 崔[]永(20世紀 추정)	崔轍永印 崔轍永(20世紀 추정)

3. 資料의 現況

송모각 장서의 분석에 앞서 먼저 판종 및 주제별로 구분하여 전체적인 分布의 현황을 살펴보자 한다. 판종별 구분은 木板本, 木活字本, 筆寫本, 拓本, 新式本으로 나누었다. 新式本은

新式活字本, 石印本을 포함한다. 주제별 구분은 동양의 전통적인 도서분류법인 四部分類 체계에 의거하여 經部, 史部, 子部, 集部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방식을 통하여 승모각 장서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崇慕閣 藏書의 現況

版種 主題	木板本		木活字本		筆寫本		拓本		新式本		計	
	種數	冊數	種數	冊數	種數	冊數	種數	冊數	新式	石印本	種數	冊數
									活字本			
經部	43	165	0	0	53	88	0	0	0	0	96	253
史部	21	148	1	1	96	116	0	0	4	16	10	132
子部	106	214	0	0	55	62	0	0	2	2	4	167
集部	40	149	6	21	197	269	1	1	9	33	17	270
計	210	676	7	22	401	535	1	1	15	51	31	6965
												1,354

위의 표를 보면, 승모각 장서는 판종별로 필사본이 401종 535책으로 가장 많으며 목판본 210종 676책과 더불어 전체 장서의 90% 이상을 구성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식본 46종 120책, 목활자본 7종 22책, 탁본 1종 1책의 순으로 장서를 구성하고 있다.

사부분류법으로 분류해보면, 집부가 270종 517책으로 가장 많고, 자부 167종 284책, 사부 132종 300책, 경부 96종 253책의 순으로 소장되어 있다.

다음 장에서는 승모각 장서의 분류 현황을 토대로 더욱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장서 구성의 특징과 주요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版種別 分析

1. 木板本

목판본은 210종 676책으로 전체 장서의 31.5%를 차지하며, 筆寫本과 더불어 대다수의 장서를 구성하고 있다. 이 가운데 中國本 8종 95책이 있으며, 袖珍本 4종 32책이 있다. 목판본의 종수를 간행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판본의 시기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종수의 비율은 16세기 2.38%, 17세기 1.9%, 18세기 39.52%, 19세기 41.9%, 20세기 4.25%, 연대미상 10%로 나타났으며, 18~19세기에 간행된 장서가 8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시기별로 주요 목판본을 살펴보면, 임란이전의 자료로 『性理大全』(【부록 1】)이 있다. 이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4호)

책은 명나라 永樂帝의 명령에 의해 胡廣을 비롯한 42명의 학자들이 宋, 元의 性理學說을 집대성하여 편찬한 책이다. 黑口本으로 月川 趙穆과 月川書堂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특히 책의 권말에는 퇴계선생이 1546년에 書題를 썼다는 月川 趙穆의 識記가 있다.³⁾

〈표 3〉 木板本의 時期別 分布

	16世紀	17世紀	18世紀	19世紀	20世紀	年代未詳	계
種數	5	4	83	88	9	21	210
比率(%)	2.38	1.90	39.52	41.90	4.25	10	100
冊數	52	14	309	197	13	91	676
比率(%)	7.69	2.07	45.71	29.14	1.92	13.46	100

17세기의 주요 목판본은 1616년 增廣司馬試의 합격자 명단을 기록한 『萬曆四十四年丙辰三月初七日增廣司馬榜目』(【부록 2】)이 있으며, 명단에는 대암 최동집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

18세기의 주요 목판본은 관상감에서 간행된 역서가 있는데, 인면을 보면 금속활자가 함께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문에는 백불암 최홍원이 약 60년 동안의 일상을 기록한 일기가 墨書되어 있다. 이 일기에는 하루의 간지와 일기 상태를 비롯하여 농사 형편, 교유 관계, 유람 일정, 질병과 이를 대처하는 자세,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반성적 표출, 부인동 동약, 종종의 대소사 등 조선시대 사대부의 일상사가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다(오용원 2015).

19세기의 주요 목판본은 정조의 명에 의해 편찬된 韻書인 『御定奎章全韻』(【부록 3】)이 있으며, 內賜印 ‘奎章之寶’가 날인되어 있다.

2. 木活字本

목활자본은 총 7종 22책으로 전체 장서 가운데 낮은 비율(1%)을 차지하며, 功臣錄券 1종과 개인 시문집 6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송모각에 소장된 공신녹권은 『宣武原從功臣錄券』(【부록 4】)으로서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宣武原從功臣들에게 공신녹권을 준 事績을 기록한 책으로, 대암 최동집의 부친인 태동 최계가 임진왜란 시 대구의 병가장으로서 세운 공로로 받은 內賜本이다. 공신녹권의 간행에 사용된 功臣都監字는 17세기에 만들어진 것이며 이를 제외한 6종의 목활자본은 모두 19세기와 20세기에 만들어진 목활자가 사용되었다. 『선무원 종공신녹권』을 제외한 목활자본은 두와 최홍벽의 『蠹窩先生文集』 등인데, 이러한 목활자본은 19세기에 만들어진 목활자가 20세기 중엽에 이르러 여러 지방에서 이루어진 개인 문집이나 족보의 간행 사례와 맥락을 같이 한다(옥영정 2003).

3)嘉靖丙午(1546)春因蔡兄上舍印于安東請於 / 退溪先生書題 / 萬曆庚寅(1590)冬東臯散人趙穆謹識

3. 筆寫本

필사본은 총 401종 535책으로 전체 장서의 60.3%를 차지한다. 필사본의 종수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筆寫本의 時期別 分布

	17世紀	18世紀	19世紀	20世紀	年代未詳	計
種數	4	95	288	4	10	401
比率(%)	0.97	23.17	70	0.97	2.43	100
冊數	4	126	364	5	36	535
比率(%)	0.74	23.55	68.03	0.93	6.72	100

필사본의 시기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종수의 비율은 17세기 0.97%, 18세기 23.17%, 19세기 70%, 20세기 0.97%, 연대미상 2.43%로 나타났으며, 18세기와 19세기에 필사된 서적 이 대다수로 전체 필사본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 시기의 자료는 종가 인물들의 문집 초고본과 교정본 및 백불암 최홍원과 동계 최주진의 親筆手蹟이 있으며, 부인동 동약의 관련 자료들이 많다.

시기별로 주요 필사본을 살펴보면, 17세기의 주요 필사본은 『通講錄』(【부록 5】)이 있다. 이 책은 1605년부터 1613년까지 대구지역의 유림들이 행한 통강의 명단과 통강을 한 서적의 명칭 및 편명까지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국내 유일의 자료로, 통강의 명단에는 대암 최동집이 포함되어 있다(구본욱 2012). 비슷한 시기인 1634년의 필사본으로 동도회의 참여인 명단이 적힌 『同道會帖』이 있다. 대암 최동집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으며, 前 參奉 金孝先과 軍資正 鄭彥宏 등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의 필사본은 대표적으로 부인동 향약 관련 서적들과 반계 유형원이 저술한 『반계수록』을 백불암 최홍원이 필사해 둔 것(【부록 6】)이 전해진다. 부인동 향약 관련 자료는 부인동의 연혁과 향약에 대해 기록한 『夫仁洞誌』, 부인동강당기가 수록된 『夫仁洞約節目』, 동계 최주진과 최수원 등 부인동 향약의 좌목이 기록된 『夫仁洞約座目』, 그 외 『先公契節目』, 『夫仁洞約公田碑』, 『夫仁洞先公恤貧庫田畠案』 등이 온전히 전해졌다. 『반계수록』의 필사본은 백불암 최홍원이 『반계수록』을 처음 접했을 당시 베풀었던 것으로 여겨왔으나, 최근 한국국학진흥원의 수 차례 자문회의 결과 1770년 경상감영에서 간행될 당시의 교정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783년 부인동 동약의 성공을 칭송하며 정조가 백불암 최홍원에게 내린 『正宗大王傳敎』도 특이할 만한 자료이다.

19세기 이후의 주요 필사본은 종가에 보관된 책의 목록을 수록한 『數咎堂書冊目錄』(【부

록 7】)과 백불암 종가의 선대와 후손들의 낙관을 모아 첨으로 만든 『閑中清翫』(【부록 8】)이 있다. 또한 『百弗庵先生文集』, 『百弗庵先生文集附錄』 등의 문집 교정본과 백불암 최홍원이 약 60년간에 걸쳐 曆書 위에 필사한 일기를 후손이 4책으로 탈초한 『역중일기』가 있다. 방대한 기간과 양을 지닌 『역중일기』는 18세기의 지방 사회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4. 拓本 및 新式本

신식본은 15종 51책의 신식활자본, 31종 69책의 석인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종 1책의 탁본과 더불어 총 47종 121책으로 전체 장서의 7.06%를 구성한다.

신식본과 탁본은 시기별로 19세기의 간행본 2종(신식본 1종, 탁본 1종)이 있으며 나머지 45종은 모두 20세기 이후에 간행된 서적이다.

IV. 主題別 分析

승모각 장서 665종 1,354책을 대상으로 동양의 전통적인 고서분류방법인 四部分類法에 의거하여 구분하였으며, 분류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 崇慕閣 藏書의 主題別 分析

四部分類	經部	史部	子部	集部	計
種數	96	132	167	270	665
比率(%)	14.43	19.84	25.11	40.6	100
冊數	253	300	284	517	1,354
比率(%)	18.68	22.15	20.97	38.18	100

승모각 장서를 주제별로 분석한 종수의 비율은 經部 14.43%, 史部 19.84%, 子部 25.11%, 集部 40.6%로 나타났으며, 集部의 양이 가장 많으며 子部, 史部, 經部의 순이다. 다음은 각 부의 세목별 장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經部

경부는 96종 253책으로 전체 장서의 14.43%의 비율을 차지한다. 경부를 四書類, 書類, 小學類, 詩類, 易類, 禮類, 總經類, 春秋類, 孝經類 9개의 類門으로 구분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6> 經部 分析

四部	經部 (96종 253책)								
	四書類	書類	小學類	詩類	易類	禮類	總經類	春秋類	孝經類
種數	35	9	9	7	5	22	3	3	3
比率(%)	36.45	9.35	9.35	7.29	5.2	22.91	3.12	3.12	3.12
冊數	99	21	12	14	7	87	3	7	3
比率(%)	39.13	8.3	4.74	5.53	2.76	34.38	1.18	2.76	1.18

경부의 세목별 분석 결과 종수의 비율은 사서류가 36.4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예류 22.91%, 서류 9.35%, 소학류 9.35%, 시류 7.29%, 역류 5.2%의 순이며 총경류, 춘추류, 효경류가 각각 3.12%로 종수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서류에는 『論語諺解』, 『論語集註大全』, 『大學諺解』, 『孟子諺解』, 『孟子集註大全』, 『中庸諺解』, 『中庸章句大全』 등이 있으며, 예류에는 『喪禮備要』, 『喪變通攷』, 『禮記集說大全』 등이 있다. 이를 통해 경서에 대한 집안의 독서 경향이 冠婚喪祭의 四禮와 같은 유교적 예의 범절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2. 史部

사부는 133종 301책으로 전체 장서의 20%를 차지한다. 사부를 金石類, 紀事本末類, 別史類, 譜系類, 史表類, 書誌類, 詩文評類, 雜史類, 傳記類, 正史類, 政法類, 詔令·秦議類, 地理類, 編年類의 14개의 류문으로 구분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7> 史部 分析

四部	史部 (132종 300책)													
	金石類	紀事本末類	別史類	譜系類	史表類	書誌類	詩文評類	雜史類	傳記類	正史類	政法類	詔令·秦議類	地理類	編年類
種數	4	1	4	8	1	1	1	2	38	7	25	1	35	3
比率(%)	3.03	0.75	3.03	6.06	0.75	0.75	0.75	1.51	28.78	5.3	18.93	0.75	26.51	2.27
冊數	4	1	4	10	1	1	1	7	69	50	36	1	38	77
比率(%)	1.33	0.33	1.33	3.33	0.33	0.33	0.33	2.33	23	16.66	12	0.33	12.66	25.66

사부의 세목별 분석 결과 종수의 비율을 보면, 전기류가 28.78%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지리류가 26.51%로 향약관련 자료들이 다수이며, 정법류가 18.9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다. 이어서 보계류 6.06%, 정사류 5.3%, 금석류와 별사류가 각각 3.03%, 편년류 2.27%, 잡사류 1.51%, 기사본말류, 사표류, 서지류, 시문평류, 조령·진의류가 각각 0.75%의 순으로 나타난다.

전기류 가운데 집안 인물로는 백불암에 대한 다수의 기록과 태동 최계의 『崔氏三忠錄』·『台洞實記』가 있다. 또한 실기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朱子實記』를 비롯한 『白村先生實紀』, 『靜齋曹先生實紀』, 『眉叟許先生年譜』과 같은 성리학 또는 실학의 사상적 본보기가 될 만한 인물들의 실기가 확인된다.

3. 子部

자부는 167종 284책으로 전체 장서의 25.11%를 차지한다. 자부를 道家類, 兵家類, 譜錄類, 術數類, 藝術類, 儒家類, 類書類, 醫家類, 天文·算法類의 9개의 류문으로 구분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8> 子部 分析

四部	子部 (167종 284책)								
	細部類	道家類	兵家類	譜錄類	術數類	藝術類	儒家類	類書類	醫家類
種數	2	1	11	1	5	42	7	14	84
比率(%)	1.19	0.59	6.58	0.59	2.99	25.14	4.19	8.38	50.29
冊數	2	1	11	1	5	95	61	24	84
比率(%)	0.70	0.35	3.87	0.35	1.76	33.45	21.47	8.45	29.57

자부의 세목별 분석 결과 종수의 비율을 보면, 천문·산법류가 50.29%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유가류가 25.14%로 다수의 장서를 구성하고 있으며, 의가류 8.38%, 보록류 6.58%, 유서류 4.19%, 예술류 2.99%, 도가류 1.19%, 병가류와 술수류가 각각 0.59%의 순으로 나타난다.

80여 종의 역서 가운데 백불암 최홍원의 일기, 즉 역중일기의 原本이 대거 확인되지만 역서의 일괄 분류를 위해 간행의 목적에 의의를 두어 자부의 천문·산법류로 분류하였다. 또한 의가류 서적이 14종으로 적지 않은 양을 구성하고 있는데, 조선시대의 선비들에게 어느 정도의 의학지식은 상식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백불암 최홍원은 『百弗庵集』을 통해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가족을 직접 병간호하였으며, 의서를 연구하여 의술과 약재에 대한 지식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4. 集部

집부는 269종 516책으로 전체 장서의 40.45%이며 四部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집부를 科詩文類, 別集類, 詞曲類, 小說類, 隨筆類, 尺牘類, 總集類의 7개의 류문로 구분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9〉 集部 分析

四部	集部 (270종 517책)						
	細部類	科詩文類	別集類	詞曲類	小說類	隨筆類	尺牘類
種數	2	118	2	8	15	4	121
比率(%)	0.74	43.70	0.74	2.96	5.55	1.48	44.81
冊數	2	283	2	32	18	4	176
比率(%)	0.38	54.73	0.38	6.18	3.48	0.77	34.04

집부의 세목별 분석 결과 종수의 비율로 보면, 총집류와 별집류가 각각 44.81%, 43.7%로 집부의 대다수를 양분한다. 다음으로 수필류 5.55%, 소설류 2.96%, 척독류 1.48%, 과시문류와 사곡류가 각각 0.74%의 순이다.

총집류는 옛날 시문을 읊겨 적은 필사본이 많으며, 별집류는 주로 개인문집이 많이 남아있다. 문집의 대부분은 종가의 선후대들이 학맥과 혈연, 혼맥 등의 관계에 있는 인물들과 교유를 통해 수집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퇴계 이황의 『退溪先生文集』을 비롯한 대암 최동집의 장인이자 晦齋 李彥迪의 손자인 無忝堂 李宜潤의 『無忝堂先生文集』, 17세기 후반 봉당정치에서 남인 정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眉叟 許穆의 『記言』, 백불암 최홍원과 함께 嶺南三老의 한 사람으로 추앙받은 대산 이상정의 『大山先生文集』, 백불암 최홍원의 문하에서 수학한 巴江 李經祿의 『巴江先生文集』 등이 있다. 파강 이경록은 옻골에서 평생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쓴 인물이며, 그의 문집에서는 13세 금강 최두영의 발문이 확인된다. 또한 백불암 최홍원의 『백불암집』, 동계 최주진의 『東溪集』, 근재 최식의 『近齋集』, 지현 최효술의 『止軒集』, 애일재 최명덕의 『愛日齋集』, 칠허 최시교의 『漆滸集』 등 백불암을 비롯한 후대 종손들의 문집을 간행하기 위한 초고본과 교정본이 확인된다.

V. 結語

이상과 같이 경주최씨 백불암 종가 승모각 장서 665종 1,354책을 대상으로 판종별, 주제별 분석을 통해 장서의 현황 및 장서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판종별 분석의 결과 필사본 401종 535책(60.3%), 목판본 210종 676책(31.57%), 신식본 46종 120책(6.91%), 목활자본 7종 22책(1.05%), 탁본 1종 1책(0.15%)의 순으로 필사본이 전체적인 장서 구성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이 18세기와 19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주제별 분석은 사부분류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집부 270종 517책(40.6%), 자부 167종 284책(25.11%), 사부 132종 300책(19.84%), 경부 96종 253책(1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부가 가장 많은 양의 장서를 구성한다. 세목별 분석의 결과 경부는 사서류와 예류, 사부는 전기류, 지리류, 정법류, 자부는 천문·산법류, 유가류, 집부는 총집류, 별집류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송모각 장서 중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상당히 많다. 시기적으로 16세기 중후반에 간행된 오래된 판본부터 주제별로 문집류, 경서류, 역사서류 등 종류가 다양하며, 상태 또한 대부분 온전하다. 따라서 향후 송모각 장서에 담긴 방대한 내용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보다 깊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경주최씨대암공파종중. 『옻골』. 大邱: 大譜社.
- 김광언. 2008. 『百弗古宅』. 서울: 민속원.
- 구본옥. 2012. 『大邱儒賢 通講錄』의 正字化와 해제. 『퇴계학논집』, 11(1): 1–7.
- 金東旭. 1992. 『沖齋 遺物觀 藏書 研究』.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현정보학과.
- 김시황. 2001. 百弗庵 崔興遠 先生의 生涯와 思想. 『퇴계학과 유교문화』, 29(1): 1–36.
- 김영숙. 2001. 百弗庵 崔興遠 詩의 道學文學的 樣相과 特性. 『퇴계학과 유교문화』, 29(2): 37–62.
- 김학수. 2001. 尚州 晉州鄭氏 愚伏宗宅 山水軒 所藏 典籍類의 내용과 성격. 『藏書閣』, 5(10): 267–366.
- 남권희. 1983. 『奎章閣 西庫의 書目과 藏書變遷 分析: 現存書目을 中心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도서관·정보학과.
- 문은희. 2015. 『全州李氏 安陽君 宗家의 古文獻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현 정보학과.
- 문화재청. 2014. 『2014년도 개인소장 비지정 동산문화재 조사사업 결과보고서(1, 2, 3)』.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 문화재청. 『2015년도 개인소장 비지정 동산문화재 조사사업 결과보고서(1)』.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 朴光憲. 2009. 『翠庵文庫 古書의 印記 分析』.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朴贊植. 2006. 『翠庵文庫 古文獻의 書誌的 分析』.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오용원. 2015. 崔興遠의 『曆中日記』를 통해 본 영남선비의 일상. 『大東漢文學』, 45(3): 71–100.
- 옥영정. 2000. 咸陽朴氏 家傳 古文獻의 내용과 資料的 特성. 『서지학연구』, 19(9): 255–285.
- 옥영정. 2001.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紅樓夢 기증 古書의 현황과 그 가치. 『서지학보』, 38(6): 157–186.
- 옥영정. 2003. 秋史家의 藏書에 관한 一考 – 東濱文庫 所藏本을 중심으로. 『서지학보』, 27(4): 79–120.
- 옥영정. 2005. 陶南 소장 고서의 書誌的 分석. 『古典文學研究』, 27(9): 191–234.
- 이재철. 2001. 百弗庵 崔興遠의 時代와 그의 實現對應. 『퇴계학과 유교문화』, 29(4): 93–118.
- 장윤수. 2001. 百弗庵 崔興遠의 性理學의 삶과 思惟. 『퇴계학과 유교문화』, 29(5): 119–144.
- 장윤수. 2015. 百弗庵 崔興遠 가문의 學風과 실천지향의 삶. 『한국학논집』, 58(7): 211–250.
- 정왕근. 2007. 法眼 金敏榮 藏書의 構成과 性格. 『서지학보』, 31(10): 301–325.
- 정진영. 2001. 백불암(百弗庵) 최홍원(崔興遠)의 학문(學問)과 향약(鄉約). 『퇴계학과 유교문화』, 29(3): 63–92.
- 조용현살롱; 대구의 백불고택. 2015. 『조선일보』. 10월 12일.
- 천혜봉. 1970. 『古書分類目錄法』.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최언돈. 2010. 『백불암 최홍원의 부인동 및 칠계[옻골] 경영 규범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한국학과.
- 최언돈, 최기창, 최용원. 2016. 『옻골의 인물과 유적』. 대구: [주]아이앤피.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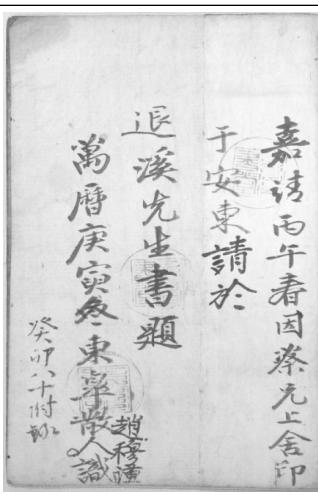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eon, Hye-Bong. 1970. *Report how a classified catalogue*. Seoul: Korea library association.
- Choi, Un-Don. 2010. *A study on Baek-Bul-Am's norms for managing Buindong and Otgol*. Ph. D. diss.,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Yeungnam University.
- Choi, Un-Don, Choi, Ki-Chang, Choi, Yong-Won. 2016. *The people and ruins of Otgol*. Daegu: INP Inc..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4. *Survey report on personal cultural properties*

- in 2014. Andong: Korean Studies Advancement Center.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4. *Survey report on personal cultural properties in 2015*. Andong: Korean Studies Advancement Center.
- Daeamgong, The haed of Gyeongju Choi clan. Otgol. Daegu: Daebosa.
- Gu, Bon-Wook. 2012. "Change of letter in printed form and bibliographic notes of 『The lecture note of confucian sage of Daegu』." *Excursions in Toegye studies*, 11(1): 1–7.
- Jang, Yun-Soo. 2001. "Baekbulam Choi Heungwon's life of Neo-Confucianism and thought." *Toegye Studies and Korean Culture*, 29(5): 119–144.
- Jang, Yun-Soo. 2015. "A life of practice orientation of Baekbulam Choi Heungwon's family."
- Jeong, Jin-Yeong. 2001. "Baekbulam Choi Heungwon's studies and village code." *Toegye Studies and Korean Culture*, 29(3): 63–92.
- Jeong, Wang-Guen. 2007. "A Study on Constitution and Characteristics of Kim Min Young Collection." *Humanistic Studies*, 31(10): 301–325.
- Joe Yongheon Salon; Baekbul Gotaek of Daegu. 2015. Daily Cho-Sun. October 12.
- Kim, Dong-Gu. 1992. *A study on the collection of Choongjae museum*.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onggyungwan University.
- Kim, Gwang-Eon. 2008. BaekbulGotaek. Seoul: Minsokwon.
- Kim, Si-Hwang. 2001. "Baekbulam Choi Heungwon's life and thought." *Toegye Studies and Korean Culture*, 29(1): 1–36.
- Kim, Yeong-Sook. 2001. "Baekbulam Choi Heungwon's aspect of moral philosophy and character." *Toegye Studies and Korean Culture*, 29(1): 1–36.
- Lee, Jae-Cheol. 2001. "Baekbulam Choi Heungwon's ages and response to reality." *Toegye Studies and Korean Culture*, 29(1): 93–118.
- Moon, Eun-hui. 2015. *A bibliographic study of the old literature of head family of Anyang-gun of Jeonju Lee*.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ungang University.
- Nam, Kwon-Hee. 1983. *A bibliographic study of a catalogue of books and changes of books in the Gyujanggak library - Around existing a catalogue of books*.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yungpook University.

- Ok, Yeong-Jeong. 2000. "Old Literature contents and material characteristic of Hamyang Park's family." *Bibliography Researches*, 19(9): 255–285.
- Ok, Yeong-Jeong. 2001. "The Present Situation and Values of Hong, Doo Seon's Donation Old Books Kept in Seoul Museum of History." *Bibliography Bulletin*, 38(6): 157–186.
- Ok, Yeong-Jeong. 2003. "A study on books of The Chusa's family - Dongbin library collection." *Bibliography Bulletin*, 27(4): 79–120.
- Ok, Yeong-Jeong. 2005. "A bibliographic study on the Do-Nam's old books collection." *Humanistic Studies*, 27(9): 191–234.
- Oh, Yong-Won, 2015. "Everyday Life of Scholars in Yeongnam Through Yeok-joong-il-gi of Choi Heung-Won." *Korea Sino-Korean Literature*, 45(3): 71–100.
- Park, Chan-Sik. 2006. *A Bibliographic Analysis of the Old Archives of Chwiam Collection*.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yungpook University.
- Park, Gwang-Heon. 2010. *The Study of Stamp mark on Old book at the Chwiam Collection*.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yungpook University.

【부록 1】『性理大全』

 <p>嘉靖丙午春因秦元上舍印 于安東請於 退溪先生書題 癸卯年仲夏 萬曆庚寅冬東學人識記 月川趙穆의 識記</p>	<p>御製性理大全序 朕惟昔者聖王繼天立極以道治天下 自伏羲神農黃帝堯舜禹湯文武相傳 授受上以是命之下以是承之雖能致 雍熙悠久之盛者不越聖道以為治也 下及秦漢以來或治或否或久或近率 不能如古昔之盛者或怒之而不行或 行之而不純所以天下平無善治人不行 於此而不得其平則天下平無善治人不行</p>	<p>性理大全 畫一 大極圖 『性理大全』 앞표지</p>
-----------------------------------------------------------------------------------------------------------------------------------------------------------------	-----------------------------------------------------------------------------------------------------------------------------------------------------------------------------------	---------------------------------------

【부록 2】『萬曆四十四年丙辰三月初七日增廣司馬榜目』

 <p>萬曆四十四年丙辰三月初七日增廣司馬榜目 一所漢城府 禮曹判書 李爾善 刑曹判書 李爾善 侍講院輔德 裴大維 司果 正即 崔公望 憲府監察 柳淪 兵曹參判 安璣 二所大平館 李覺 敦寧府判敎寧 閔泰龍 兵曹參判 公合</p>	 <p>『萬曆四十四年丙辰三月初七日增廣司馬榜目』 앞표지</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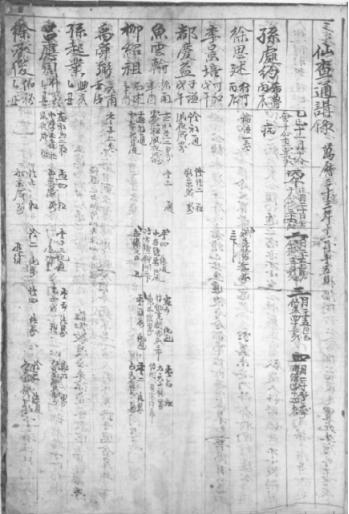
【부록 3】『御定奎章全韻』

	
『御定奎章全韻』 권수면	『御定奎章全韻』 앞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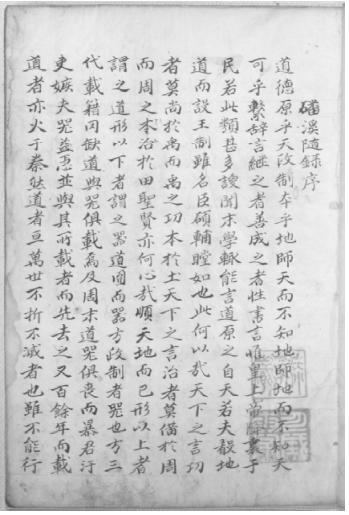
【부록 4】『宣武原從功臣錄券』

	
『宣武原從功臣錄券』 권수면	『宣武原從功臣錄券』 앞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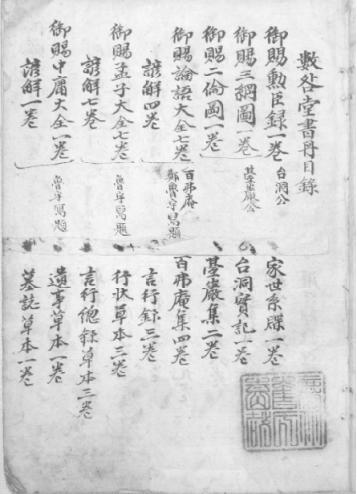
【부록 5】『通講錄』

	
『通講錄』 권수면	『通講錄』 앞표지

【부록 6】『磻溪隨錄』

	
『磻溪隨錄』 서문	『磻溪隨錄』 앞표지

【부록 7】『數咎堂書冊目錄』

	
『數咎堂書冊目錄』 권수면	『數咎堂書冊目錄』 앞표지

【부록 8】『閑中清翫』

	
『閑中清翫』 권수면	『閑中清翫』 앞표지

